



박 재 주
(가톨릭사회복지회)

1. 서 언

사람은 누구든지 나서부터 나이를 더해가면서 늙음에 이르는 것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늙어감에 따라 신체적으로는 심장, 폐, 신장 등의 기능이 약해지고 골격의 유연성을 잃게 되고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는 등 쇠약해지며 시력과 청력 등이 감퇴된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뇌와 신경계통의 노화로 인하여 지능, 의욕, 감정면에서도 기능이 저하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생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환경에의 적응에도 곤란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노인은 인생의 쇠퇴기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노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경험과 역사적 안목의 소유자이다. 이와 같은 경험 속에는 아무리 기계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삶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노인들이다. 노인들은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즐거움과 피로움을 겪어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노력으로 승화시켜 오늘의 사회를 건설해온 공로자들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노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완숙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노년기를 인생의 가장 완숙한 시기라고 생각하더라도 심신의 쇠약만은 피할 수 없으며 생활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존적이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이다. 그래서 노인에게는 세 가지 고통, 즉 빈곤, 질병, 고독이 있다

고 하고 최근에는 “할 일 없는 노인”이라 하여, 네 가지 노인의 고통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수일전 전대통령께서 원로인사들을 모시고 완담하는 자리에서 모종교계 원로인사께서 경험이 풍부한 50대 한참 일할 나이에 물러나게 되는 일을 없게 하여 국가 사회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진언을 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다. 참으로 옳은 진언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2. 조국의 근대화와 노인소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있어서 일차산업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동안은 노인소의의 문제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5.16 이후 조국의 근대화라는 경제개발 전략은 “경제 제일주의”라는 표어를 내걸고 경제전선이야 말로 민족의 대과업으로 알고 강력히 추진하면서 이에 부수적으로 일어날 문제에 관하여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거나 미처 고려에 넣지 못했던 것 같다. 개발되는 산업시설에는 농촌의 젊은 인력을 도시로 유입시켜 공장 근로자로 전직하도록 하였으며 농촌에 두고온 부모는 노인세대로 남아 소외되거나 자녀 따라 도시로 이주한 노인들은 역할없이 시간보내기도 지겨운 노인이 되었으며, 또 정년도 채되기 전에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회 분위기는 젊은 노인층을 증가시키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

경제제일주의 표어아래 모든 정책수단을 집중하다보니 모든 사람의 가치판 마저 경제력이 제일이라는 쪽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져어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능력없는 노인층이 소외되고 사회와 가정에서 종전과 같이 존경받고 우대받으며 가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 등은 고전에서나 읽을 수 있는 것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첫째는 산업사회화됨에 따라 노인이 쌓은 경험이 현재 자녀들이 살아가는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며 둘째는 대가족제로부터 핵가족화에 따라 3, 4대에 걸친 혈연적 유대감의 약화

를 가져온 점이며, 세대는 세대간의 교육적 배경의 차이 또한 큰 원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제로 사회환경과 분위기의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메스컴은 핵가족에 관한 조사 데이타라든가 젊은이들의 가치관 조사 데이타 등은 예외없이 노인의 부양이나 노인우대사상의 퇴보를 재촉하였으며, 다섯째로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편화하기 시작한 아파트의 보급에 있어서 그 구조를 보면 젊은 주인 내의 중심의 핵가족에 알맞게 설계된 것이지 노부부를 포함한 3대 동거가족의 주택으로써는 전혀 고려에 넣지 아니한 것임을 취 알 수 있다. 여섯째로는 오늘날의 기초교육 과정의 교과편성에 있어서 조부모에 대한 의식을 얼마만큼 넣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별로 고려에 넣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가 있다. 국민학교 저학년 교과서의 그림 가운데 가정을 주제로 한 것에 조부모의 그림과 부모의 그림을 구분해 보면 부모의 그림이 대부분이고 조부모의 그림은 별로 많지가 않음을 볼 수 있다.

3. 적극적 복지대책

노인복지라고 하면 양노원이나 노인대학을 연상하게 된다. 양노원과 같은 사후 치료적인 노인복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노인복지 대책이 적극적으로 선행되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실정에 맞도록 섬세하고 인간적인 배려하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한가지 견해를 내놓고자 한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가장 익숙하고 편한 환경은 가정인 것이다. 만약 가정이란 사회의 기초 단위가 인간에게 편하고 좋은 곳이 아니었다면 장구한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변형 또는 해체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도 가정보다 더 좋은 안주처는 따로 있을 수가 없다. 다만 가정에서 살 수 없는 특성의 사유가 있어 대리가정으로서 양노원이나 중간시설(half way house)을 이용하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노인복지를 위한 적극적 대책으로 다음의 다섯가지를 기초로

하여 구축해 나가면서 요보호 노인의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첫째, 자라나는 새 세대에게 경노효친의 교육이 주어져야 하며 청장년층은 노부모 공경의 모범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어퍼서부터 노부모 모시는 법을 보고 배우게 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20~30년 뒤 청장년 자신들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노인들은 교육적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못한 시대에 자라났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감퇴되었기 때문에 자녀 손자녀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원활한 소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현대를 사는 노인들 자신이 사회적응과 현대감각을 터득하기 위한 노력과 인생사회의 풍부한 경험자로서의 긍지와 아량으로 인생의 마지막 봉사 기회를, 특히 문화전통의 전수자로서의 노인 고유의 역할을 다 한다는 몇몇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든 복지사업의 현대적 경향은 수혜자의 의욕과 노력이 앞서지 아니하고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다.

셋째로는 지역사회에서 경노효친의 계몽과 권장은 물론 구체적인 활동으로 노인 공경과 우대의 분위기를 심어 나아가므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의 기반을 이루도록 하고 특성의 시설에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노인은 보호 조치해야 할 것이다.

네째는 정부가 인사정책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법규의 준수는 물론이고 모든 사용자는 노동법규를 준수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로, 일할 능력이 있고 직장을 떠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퇴직하므로써 가정경제에 위기를 초래하여 자녀들의 교육마저 중단하게 되는 어려움과 퇴직자가 단순한 실업자가 아니라 젊은 노인으로 전락되는 것이니 이것은 정책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노인복지의 기반구축에 큰 문제가 되며 나아가서 세대간 계층간의 위화감이 생겨날까 우려되는 것이다.

특집 : 노인복지

다섯째는 국민복지연금 제도의 시행을 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공무원들의 연금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으로 국가에 평생을 봉사하였으니 노후를 보장해 주는 정책적 배려에 추호도 반대나 이의가 있을 리 없다. 그러면 평생을 민간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경제건설의 일선역군으로 종사한 일반 국민들의 국가적 기여도는 낮게 평가되어야 할 이유는 있을 수 없다.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지 특권층이 아니라는 것을 노후 보장에서 실증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출신계층간의 위화감의 발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의 진일보라는 측면에서도 국민복지연금의 조속한 시행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4. 결 론

인간의 행복은 경제적 부나 사회적 출세, 학문적 명성에서 보다는 대인관계에서 서로가 인간다움을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람은 임종에서 정직하고 솔직해 진다고 한다. 임종에 가까워진 노인이 자기의 임종할 장소로는 대개 가정을 원하며, 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모두 보고 눈감기를 원하는 것은 양의 동서 구분이 없는 공통점이라는 것이다.

가족은 조건없이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이다. 노인은 가족의 어른이다. 22

이 달의 수증간행물

- 각급 사회교육기관을 통한 인구 및 가족계획교육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간호학회지, 11권 2호(12월호), 대한간호학회 1981
- 과학과 기술, 제14권 12호(12월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교육가능 정신박약아의 학술승관조사, 김정걸, 자행회
- 국민영양, 12월호, 대한영양학회
- 국민의료에 관한 의식구조 조사보고, 대한의학협회 조사연구실, 1981.11.
- 대한병원협회지, 제10권 12호(12월호), 대한병원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19권 12호(12월호), 대한치과의사협회
- 동아약보, 제153호(1월호), 동아제약(주)
- 모성의 영아영양에 대한 태도조사, 조복희 전남대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논문
- 병원내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오염상태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보건사회, 보건사회부, 1981
- 보건사회통제연보, 보건사회부, 1981
- 보건요원 실태조사보고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복지, 통권 110호(1월호), 대한나협회
- 사회복지, 겨울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식품공업, 62호(12월호), 한국식품공업협회
- 식품과 영양, 제 2권 4호, 등계호, 농촌영양개선연구회
- 아동복지, 겨울호, 홀트아동복지회
- 乙支醫報, 제 4 권 2호, 을지임상의학연구소
- 인간과학, 제 5 권 11호(11월호), 성심중앙유지재단
- 재활연구, 제 7 호, 삼육아동재활원